

WINTER 2018 | VOL. 192

www.holt.or.kr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소식
www.holt.or.kr



겨울 이야기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우수상 '쌍타팀'을 비롯해 수상의 영광을 안은 주인공들과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9p계속)

06 꿈과희망
09 싱글맘 Jump with baby
12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1
14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2
17 Love In World
20 나눔기업 1
22 나눔기업 2
24 행복한 가족 만들기
26 희망풍경 1
28 희망풍경 2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권 | 192호 · 계간 **발행일** | 2018년 12월 17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호현
발간위원 |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김보희(일산복지타운), 황지혜(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3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 임부웅 이사(前 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前 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홀트강동복지관 T.02)2251-6100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홀트미추홀 T.070)8210-160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광주클로버 www.holtlove.or.kr/gj-clover T.062)361-5900

국제개발협력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네팔(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으로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너라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들의 회복과 완치를 도왔으며, 주거지원사업 "맘든든 울타리"를 통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아동들을 "꿈동이"로 선정하여 학습과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의 부재로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을 통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시설퇴소 청소년의 힘찬 날갯짓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해가 홀로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미혼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는 한 해였다면, 2018년도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가난이 교육의 기회마저 빼앗지 않도록 "해외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오는 2019년도에는 "북한아동지원사업"을 통해 빈곤 아동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돕고자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올 여름은 참으로 더웠고, 지금 맞이하는 겨울은 매우 춥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그 가정의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사나운 날씨보다 더 매서울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아동과 그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회장 김호현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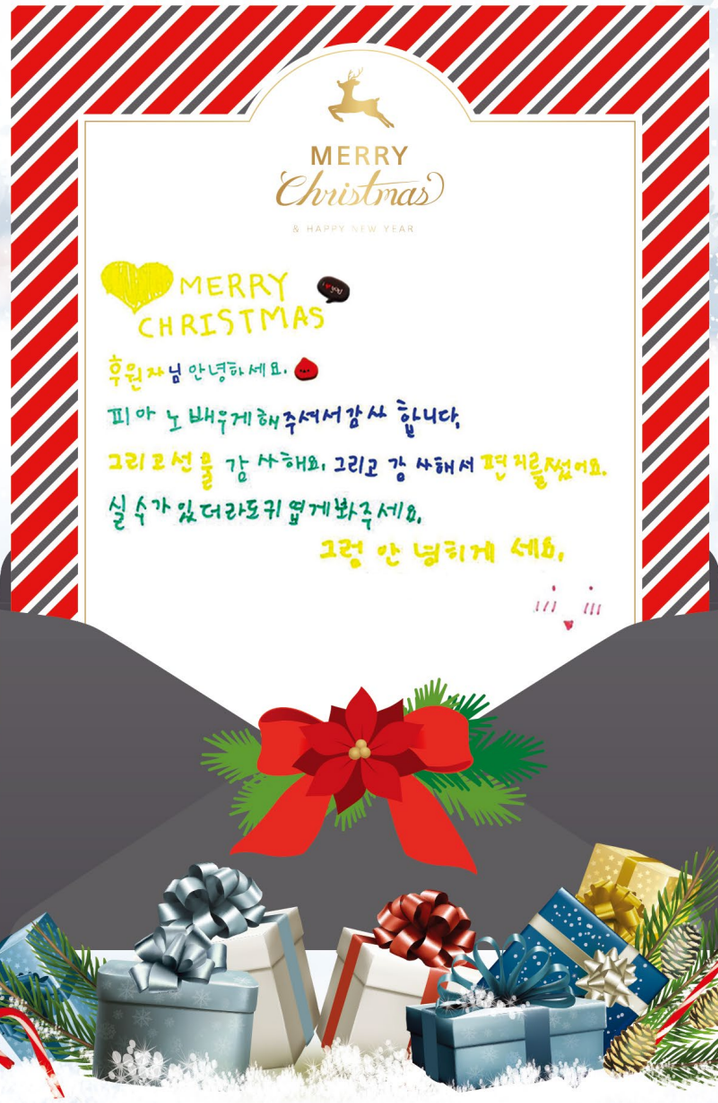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의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의 비전은
60여년 전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아동과 후원자님의 사랑가득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동결연 허브 · 홍보팀 이현주



"메리 크리스마스!" 거리에 들려오는 캐롤송 그리고 가족, 연인과 함께 모인 자리. 크리스마스하면 그려지는 풍경이죠? 날씨는 쌀쌀해지지만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온 카드와 선물 때문이 아닐까요? 후원자님과 결연아동들이 서로 편지와 선물로 사랑의 마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후원자님의 사랑을 담아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

"저.. 결연아동한테 편지랑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요…."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계신 후원자님께서 편지와 선물을 전해주길 요청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담당자의 마음이 두근거린답니다. 아이들이 수줍게 미소 지을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후원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을지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8년째 홀트와 인연을 이어오신 라인실 후원자님은 2017년 허브의 첫 시작부터 결연아동을 품고 지금까지 후원해주시고 계시답니다. 라인실 후원자님은 편지와 함께 올해 열다섯 살 난 사춘기 소녀 신영이를 위해 마치 이모가 조카에게 보내주듯 엄선하셔서 분홍색 실내용 파자마와 귀여운 실내화, 예쁜 머리띠까지 세트로 예쁘게 맞춰 구입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신 아빠와 단 둘이 지내는 신영이는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모든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기뻐했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답니다.
라인실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Q. 라인실 후원자님, 어떻게 소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셨나요?

신영이가 핑크를 좋아한다고 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했고, 또 하나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학생 때 선생님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제게 속옷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예쁜 속옷 입으면 좋겠다면서 선물상자를 건네주셨는데, 25년이 지나도 언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절 생각하는 것 같아 따스했거든요. 신영이도 따스함이 마음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어요.

Q. 신영이가 후원자님께 드린 감사편지와 사진을 보니 어떠셨어요?

마음에 꼭 든다는 편지와 함께 좋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니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신영이가 행복했었구나 하는 기쁨도요.

Q. 선물이나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해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후원이라는 말은 거창한 것 같아요. 후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내 것을 조금 나눠준다고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 웃는 사람이 한 명은 있으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 웃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두 번째 이야기,
후원자님께 드릴 편지를 쓰는 결연아동

연말이 되면 모든 허브 결연아동들은 후원자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카드를 쓰느라 바쁘답니다. 연필로 삐뚤삐뚤, 꾹꾹 눌러쓴 인사가 너무 귀엽죠? 아이들은 빈 편지지를 마주하면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후원자님께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하실까?'라며 어떻게 쓸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이번에는 후원자님께 드릴 크리스마스카드를 꾸미는 정우, 은진이네 남매를 만나볼까요? "후원자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리가 아파서 치료중이어도 늘 괜찮다며 미소 짓는 정우. 그리고 명랑하게 웃는 미소가 예쁜 은진이. 두 남매는 오늘 후원자님들께 보낼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드느라 아주 바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미술용품 선물을 받고 "와~! 진짜 좋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고는 크리스마스카드에 뭐라고 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메리크리스마스'랑 '아이 러브 유'는 영어로 어떻게 써요? 써서 보여주시면 카드에 쓸래요!"라며 귀여운 요구사항도 이야기하지요.





또래들처럼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은진이와 뇌병변 장애로 인해 다리수술을 여러 번 받게 된 정우는 올해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결연후원금이 더 소중했습니다. "정우야, 후원자님께 뭐라고 편지 쓰고 싶어?"라고 물으니 "후원자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후원자님께 '다리 수술하느라 많이 아팠어요.'라고 말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후원자님께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정우의 마음이 느껴져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훌쩍 자라버린 마음 때문이겠지요. 정우와 은진이는 장장 1시간 동안 열심히 카드를 꾸미고 편지도 썼답니다. 편지를 받으시면 아이들의 마음을 꼬옥 안아주시고 답장으로 격려해주세요!

후원자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허브(Hub) 역할을 해오면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느낀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따듯한 느낌이 떠오르듯 후원자님과 아이들 사이를 잇는 편지에 담긴 따뜻한 그 무언가를 말이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모두에게 사랑이 나누어져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본문에 쓰인 아동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이해와 긍정으로!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 미혼한부모지원센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중에서도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롯데지주, 롯데컬처웍스가 후원한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23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7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한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롯데지주 오성수 상무는 축사를 통해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상자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큰 박수 소리가 행사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예의 대상을 받은 이종민 씨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다”고 전하며 “저 역시 한부모가정에서 자랐는데,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부족하지만 직접 노래를 불렀다”고 밝혀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공모전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미혼한부모가족의 엄마와 자녀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족에게 힘이 되고, 용기와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상작들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작은 밀알이 알찬 열매를 맺어 미혼한부모가족이 하루 빨리 편견 없는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2018 미혼한부모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ayhol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이종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희망의 노래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저도 한부모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료를 찾는 동안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리며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응원하면 그분들께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함께 행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희망적으로 만들었고요. 미혼한부모가정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 노래와 영상이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 그리고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힘들 때도 있겠지만 앞으로 행복한 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힘내세요!

최우수상 이민정

저희도 소중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사랑이 소중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임산부인 제게는 매우 뜻깊은 상입니다. 입덧이 끝날 때쯤 우연히 공모전을 접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참여했습니다. 엄마가 되어 보니 막연히 생각하던 모성애와 책임감이 가슴에 확 와 닿더라고요. 미혼한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새 생명에 대한 소식은 매우 설레는 일이에요. 희망찬 시작과 함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만들죠. 미혼한부모가족에게는 더 큰 사랑과 결심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을 샌드 아트로 표현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해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희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더 큰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라고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심코 던진 우리의 시선과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좌절이 될 수도, 반대로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수상 (2팀)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김정민

“우리 엄마 정말 멋지죠?”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엄마를 자신 있게 소개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미혼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아이의 시선에 담아 밝게 표현했습니다.

평범함에 대하여 쌍타팀

(정주연 · 강나래 · 인성연 · 장소망)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는 날, 소파에서 과자를 먹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자녀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편견을 거두고 보면 미혼한부모가정 역시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저희 영상이 또 다른 차별이나 편견을 만들지 않도록 미혼한부모가정에 대해 아는 척 하거나 억지로 차별점을 찾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장려상 (3팀)

평범한 아빠 이하영

주인공인 남자 대학생이 술 제안을 거절하자 동기들은 “서윤이냐”며 부러워합니다. 곧이어 “나는 대학생입니다, 나는 평범한 서윤이의 아빠입니다”라는 자막이 뜨고 여자 친구가 아닌 딸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반전을 주고 싶었고, 미혼부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Abandon 김예은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는 소녀의 뒷모습,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나무괴물들, 그때 한줄기 빛이 나비가 되어 그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힘든 선택을 하고, 가정을 계속 지켜나가는 분들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격려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보아요 오상우

누군가의 사랑과 노력이 없다면 한 생명도, 한 가족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혼한부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차 다양해지는 형태의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영아, 너의 환한 웃음을 늘 응원해

아동 의료지원 · 아동양육팀 김혜성 팀장



36주, 2.68kg로 태어난 수영이는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부모로부터 입양을 의뢰받았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얼굴에 선한 느낌을 가진 수영이는 우리회의 위탁가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자며 잘 지내는 수영이를 꾸준히 주의 깊게 보니 종일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위탁모가 목욕시킬 때마다 무척 힘이 들 정도로 몸이 뻣뻣했습니다. 바로 홀트의원에서 진료해보니 발달도 조금 느리고 몸에 강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후 6개월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처음 진료 시 강직의 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다른 아이들은 일주일에 2회씩 진행하는 물리치료를 수영이는 일주일에 3회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강직이나 발달지연 증세는 뇌병변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뇌 MRI와 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영이는 '뇌갈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파 검사에서 경기 소견도 발견되었습니다. '뇌갈림증'이란 말 그대로 양쪽 뇌의 갈라짐이 있는 것인데, 갈림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늦고 지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의 운동 기능 부분에 갈림증이 발생하면 운동 영역이나 행동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갈림증이 있는 일부 아동들은 비정상적으로 뇌의 크기가 작거나 지적장애, 마비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환자에게서 간질 발작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 증상에 맞는 다양한 치료를 진행해야 하며, 경기를 하는 경우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영이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항경련제'를 복용한 이후 간혹 보이던 경기 증세가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를 주 3회씩 열심히 받고 있는데도 아직 강직과 발달 지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이는 현재 14개월이 되었지만, 발달 수준은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이 4개월, 사회성과 인지 수준이 6~7개월, 언어는 9~10개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간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대근육이나 소근육 운동은 발달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을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을 가리며 옹알이도 제법 하는 등 인지 측면에서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호전되고 있어 위탁가족은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수영이에게는 위탁가족의 노력이나 각종 의료 지원과 함께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물리치료 외에도 작업치료나 언어치료 등 특수치료가 진행되어야 해서 머지않아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전원될 예정입니다. 이제 좀 또렷해진 눈빛으로 눈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환하게 웃어주는 수영이가 못내 그립겠지만, 어디서나 밝은 미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문에 쓰인 아동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후원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특별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위탁가정 크리스마스파티 · 아동양육팀

지난 12월 5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장기근속 · 명예퇴임 위탁모 시상식과 미국홀트 후원자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파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입양 대기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모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과 동료 위탁모들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풍성하고 뜻깊은 연말을 맞았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6층이 시끌벅적합니다. 강당 안은 색색의 풍선으로 장식되어 연말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위탁모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혹은 아이를 안고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행사장은 위탁모와 아동들 그리고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에서 온 홀트 후원자들과 입양 자녀들이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 25년 근속 수상자 임혜경 위탁모



▲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위탁모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위탁모들은 차례로 단상에 올라 표창장과 메달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오랜 시간 사랑으로 양육하며 봉사한 위탁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장이 전달되었습니다. 5년부터 25년까지 근속자 32명과 명예퇴임 위탁모 4명으로 모두 36명이 영예로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김호현 회장은 "5년에서 길게는 25년까지 위탁모로 활동하시고, 또 65세가 되어 퇴직하신 엄마도 여럿 계시다"며 "아이들이 엄마들 덕분에 잘 자라서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늘 고마울 따름"이라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상자를 대표해 답사를 전한 문한기 위탁모는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어렵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떠올리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행복해지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다"며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 일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받은 웃음을 오랫동안 모두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입양가족 모임인 '부천 한사랑회 합창단'과 홀트아동복지회 직원들로 구성된 '홀트 아가페 성가대'가 연이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자 미국에서 온 후원자들이 위탁모 한 명 한 명을 찾아 직접 준비해온 선물을 전하며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모두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커팅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5년 근속상을 받은 오지윤 위탁모는 "직장을 그만둔 후 위탁모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은 직장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 행복하다"며 "위탁모 활동을 하게 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입양가정의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축하공연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명순 위탁모는 "딱 1년 전인 지난해 12월 6일에 떠나보낸 아이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이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 기분이 참 좋았다"며 "오늘 아침에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금 늦게 도착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22년차인 김근화 위탁모는 오늘 다른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게 얼핏 쉬워 보일지 몰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탁모 활동은 무척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5년, 10년, 20년 이상 꾸준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위탁모들이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 받는 행복이 있어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은 위탁모의 품을 거쳐 입양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짧지만 꼭 필요한 사랑을 주는 특별한 사람들, 그들의 활동을 힘껏 응원합니다.



사랑 가득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선정요건

1) 신청인과 가족 모두 건강하며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가정
2) 신청인의 나이가 2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막내가 만 7세 이상인 가정
3) 홀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 살고 있으며, 양육 공간이 여유 있는 가정
4) 가족 모두 위탁양육에 협조적이어야 하며, 다른 부업을 하지 않은 가정



위탁가정 선정절차

01	02	03	04	05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위탁가정 신청 접수 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작성	상담원 가정방문	아기돌보기 교육	위탁양육 시작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병 여부 기록 포함)



위탁가정 지원

1)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2) 아동 양육 물품 지급
3) 아동 의료 지원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양육팀
– 전화 : 02) 331–7040~7045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8번출구)

아이들의 꿈, 높이 날아라!

해외아동 초청연수 · 해외사업팀 이필영





1



2

올해도 9월 한 달은 숨 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7시부터 낮 1시까지 인천공항에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에서 온 비행기가 차례차례 도착했고 각 홀트드림센터마다 아이들 두 명에 선생님 한 분씩 모두 9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해외아동 초청연수는 2015년부터 4년간 연속으로 지속되며 현지 사업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아이들은 한국 방문을 위해 홀트드림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출국 때는 학부모는 물론 친척이나 이웃들까지 공항에 나와 아이들을 배웅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초청연수 경험이 자부심이자 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일주일이지만 지난 3년간 연수를 진행하며 얻은 아이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하여 놀이와 직업, IT 등을 포함해 되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청계천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잘 정비된 청계천과 그 옆에 줄지어 서있는 높은 빌딩을 보다가 박물관에서 서울의 옛 모습을 보게 되니 현지 선생님과 아이들에게는 꽤나 신기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어느 방문지에서보다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막연하기만 했던 아이들의 꿈이 경찰, 비행기 승무원, 축구선수, 엔지니어 등으로 더욱 다양하고 뚜렷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보고 다녀가 현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본국의 경제 발전까지도 고민해 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시우따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에드거 갈바스'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통해 앞으로 희망을 갖고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요. 무척이나 대견스러운 친구들입니다. 몽골홀트드림센터에 처음 다닐 때부터 한국방문이 꿈이었다는 '남온다르'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이미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말해 꿈을 응원하려고 연수를 기획한 담당자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 활동으로 함께한 김민채 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줍지만 밝은 웃음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통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인솔하는 담당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가족처럼 정겨운 미소와 환대를 받았습니다. 몽골홀트드림센터 현지 선생님은 그동안 많은 사랑과 나눔을 받아온 아이들에게는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음 연수에는 아이들과 함께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현지 선생님들은 연수를 통해 홀트의 한 가족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선생님들이 더 큰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지겠지요. 올해도 해외아동 초청연수 비용 전체를 후원해주신 신한금융투자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용인제일교회, 롯데월드, 한국머스크, 결연후원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저마다 꾼 꿈들이 비행기처럼 높이 날아올라 푸른 하늘처럼 맑고 아름답게 실현되길 응원합니다.

3



1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보는 아이들
2 을왕리 바다에서 멋진 포즈를 취한 아이들과 현지 선생님들
3 신한금융투자 후원금 전달식

Nurture Our World!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기업사회공헌 · 나눔협력팀 이윤주



런 투 기브 'Run to Give'

화창한 9월의 마지막 날, 올림픽 공원에서는 기부 러너 400명의 즐거운 달리기가 한창입니다. "탕!" 소리와 함께 마라톤이 시작되자 남녀노소 모두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결승선으로 향합니다. 기분 좋은 땀으로 가득했던 마라톤이 끝난 후에는 맛있는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간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아동 참가자의 수상소감과 근엄한 포즈는 참가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행운권 추첨 번호를 잘못 듣고 시상대로 웃으며 달려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참가자, 주최 측 직원이라며 당첨 상품을 다른 참가자에게 양보하는 진풍경들 덕분에 행사는 더욱 풍성해지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수익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등 국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계열 14개 호텔 직원 총 40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 모인 참여 수익금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양육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키우자 'Nurture Our World'

오늘의 즐거운 행사를 주최한 곳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130개 국가 및 지역에 6,7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 기업으로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메리어트'에서 주관해 온 많은 사회공헌 활동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리어트'는 2017년에 출시한 '서브(Serve) 360' 사회공헌 플랫폼의 원칙 중 하나인 '우리의 세상을 키우자(Nurture Our World)'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연례행사로 진행해온 자선 마라톤 '런 투 기브(Run to Give)' 행사를 비롯해 '행복한 나눔오리 경주대회', 객실 패키지 '꽃길만 걷자',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함께 홀트아동복지회의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는 아동들을 위한 양육기금, 중증장애아동의 위관 영양식, 미혼 엄마와 아기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이어져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업인 호텔 업무 못지않게 나눔을 중요시하는 '메리어트'는 각 계열사 대표가 모이는 정기회의 때마다 함께 나눔에 대해 고민과 토론을 하고, 기부 행사에 대한 구상도 직접 직원들과 함께 구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진행되는 행사에는 계열사 직원 모두가 참가하여, 수익금의 기부처와 기부분야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데요. 작년 10월에는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따뜻한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사회공헌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이 쌓인다고 하죠? 함께이기에 즐겁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기업 메리어트! 메리어트 직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사랑이 배가 되어 홀트아동복지회와 아이들이 함께 걸어갈 따뜻하고 희망찬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1


2


3


1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시설 개보수
2 메리어트 '우먼인리더쉽' 봉사활동
3 행복한 나눔오리 경주대회

고객과 함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홀트패밀리#

중소상공인 후원 캠페인 · 나눔협력팀 홍은지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온 중소상공인 정기후원 캠페인 '아이사랑곳간'이 2018년 4분기를 기점으로 '홀트패밀리#'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뜻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중소상공인 나눔 실천 캠페인 '홀트패밀리샵'으로써 특별한 시작을 함께해주신 후원자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고객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입꼬리가 올라가요!
'농가의 하루'

농가의 하루는 경기도 용인, 화성, 천안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퓨전 음식점입니다.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는 식당입니다. 감사하게도 농가의 하루 용인점, 화성점 두 곳 모두 홀트패밀리샵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두 지점의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독특합니다. 바로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이신 송재호님 덕분입니다. 송재호님의 단골가게이기도 한 농가의 하루, 어느 날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는 송재호님의 제안으로 홀트와 농가의 하루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큰 도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의 나눔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농가의 하루 화성점 대표 조영수 후원자님. 후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가게에 방문해주신 손님들이 홀트패밀리샵 현판을 보고 "와! 좋은일 하시네요." 라는 한마디를 건네주실 때마다 조용히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후원자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덕분에 우연한 나눔의 기회를 좋은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주신 홀트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개원과 동시에 나눔을 결심했습니다!
'딜라이트 치과의원'

자신만의 색깔로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홀트패밀리샵으로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게 된 딜라이트 치과의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딜라이트 치과의원은 최근 미혼한부모의 치과치료에도 재능기부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홀트패밀리샵으로 인연을 맺은 홀트에서 먼저 요청해주신 덕분에 미혼한부모 치과치료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홀트패밀리샵 참여와 치료지원 재능기부를 함께 해주고 계신 딜라이트 치과의원 원장 이정환 후원자님. 후원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보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물론 스스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러다보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작은 첫걸음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신 이정환 후원자님의 마음이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홀트패밀리샵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로써, 풍성한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홀트패밀리샵은

중소규모의 자영업, 프랜차이즈업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어린이집 등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업체의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후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입니다.

 # 참여방법은?

신청하기(유선/온라인) → 첫 후원금 입금 → 가입축하 및 현판 전달 → 매장홍보 및 나눔 알리기

 # 참여혜택은?

1) 홀트패밀리# 아크릴 현판 제공
2) 홀트 홈페이지, 블로그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3) 후원 결과보고 제공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제혜택 제공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나눔협력팀 02-331-7146

홀트
패밀리#

모국으로의 행복한 여행, HAPPY JOURNEY

해외입양인 초청연수 · 입양가정지원센터 류민현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던 10월의 가을날, 다섯 명의 입양인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국.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한국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겠지요. 입양인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가 준비한 모국방문 프로그램 '2018 Happy journey'. 이번 여정에는 특별히 입양인의 파트너를 함께 초청하여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0월 17일 본회 강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새로 만나는 입양인들과 인사하며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한국에 오게 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입양인으로 살아오면서 막연히 생각해 왔던 한국에 대한 궁금증,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는 다른 한국의 문화체험, 입양기록, 친 가족 찾기 등 이번 여정에 대해 품고 온 기대는 참 다양했습니다. 방문단은 먼저 홀트일산복지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홀트의 산증인이신 말리홀트 이사장님과의 뜻깊은 만남을 통해 한국 입양의 시작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방문단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일산 타운의 방문이 더욱 특별했던 한사람, 이번 참가자 중 가장 연장자인 Janet은 입양 전 자신을 진찰해 주었던 홀트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What a happy coincidence!" Janet에겐 아마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지요.

이번 모국방문의 테마는 Past & Present of Korea. 민속촌과 창덕궁, 인사동, 김치 만들기, 전통음악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해 봅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장구채를 쥔 손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휘모리장단의 매력에 빠져버린 입양인은 장구를 구입해 미국에 가져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인사동을 수소문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매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남산타워, 무려 120층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오르자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전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또한 트렌디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핫플레이스 홍대에서 쇼핑과 식사를 즐기며 한 거리문화체험을 통해 입양인들에게 한국이 조금 더 친숙하고 즐겁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평소엔 사용하지 않던, 발음하기 조차 어색했던 자신들의 한국이름으로 인장을 만들어 보던 시간. 진지한 표정으로 인장에 이름을 한땀 한땀 새기고 소리 내어 읽어보는 모습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이 되겠지요. 특히 벨기에 입양인 Sofie는 이번 일정동안 친 가족을 만났는데요. 총 6명의 가족들이 저 멀리 지방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양손 가득 가족을 위한 선물을 바리바리 싸오셔서 가슴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Sofie는 처음으로 한국 가정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너무도 짧았던 8박 9일의 일정. 헤어짐이 아쉬운 건 입양인 본인뿐 아니라, 여정을 함께 해준 각자의 파트너들,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직원들까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소감을 전하다 울음이 터져버린 막내 노르웨이 입양인을 보며 모두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바라건대, 이번 모국 방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Happy Journey'로 남기를.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모국'으로 특별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See you again in Korea!"





1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방식으로 그릇을 만드는 입양인
2, 3 다양한 연령대의 입양인이 참여한 모국연수

해피홀트데이 '홀트패밀리컵 만들기'

후원자 소모임 · 나눔지원팀 송하영

언제 그 더운 여름을 지나 왔나 싶을 만큼 겨울이 완연했던 지난 12월 7일 금요일 저녁, 2018년의 마지막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 소모임 '해피홀트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눔을 실천하며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홀트패밀리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찬바람이 매서워 잔뜩 몸을 웅크리게 되는 겨울날이었지만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분들이 모인 곳은 그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배고픈 저녁시간인 만큼 시작은 숨을 돌리며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다과를 먹으면서 홀트 소개 영상을 보았습니다. 3분 남짓한 짧은 영상에는, 전쟁 이후 홀트가 입양뿐 아니라 다양한 모금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후원자분들은 홀트의 가족으로서 홀트를 더 많이 이해하고, 오늘 한 자리에 모여 한 가족으로서 나눔을 통한 더 큰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컵을 만들기에 앞서, 강사 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도 후원자들은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이 컵에 어떤 의미와 마음을 담아야 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홀트와 함께 나눔을 실천했던 한 해의 감사한 마음을 고스란히 컵에 담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고민과 머뭇거림도 잠시, 저마다 가지고 있던 생각을 차분히 그리고 대담하게 담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넉넉한 미소가 아름다웠던 50대 후원자부터 붓을 잡는 모습이 어른들 못지않게 야무졌던 27개월의 최연소 쌍둥이 후원자들까지 각자의 마음을 담아 솜씨를 발휘하자 강당 안은 곧 형형색색의 예쁘고 따뜻한 컵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것은 컵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동반하는 사람 없이 혼자 왔던 후원자분들끼리는 어느새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친해졌고, 같은 테이블에서 컵을 꾸미던 사람들도 서로의 컵을 칭찬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서 기분좋은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홀트 가족으로서 실천하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홀트아동복지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리 홍보 캠페인 중인 직원분들을 통해 홀트의 이야기를 듣고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구와 과자 하나를 나눠먹어도 기분이 좋은데요. 제 생각엔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슬픔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두 배가 되더라고요. 오늘 행사에 혼자 왔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후원자님이 어머니처럼 잘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박정민 후원자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최연소 후원자 27개월 쌍둥이 '찬빈이 수빈이네' 가족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른둥이로 태어나 중환자실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임신하고 홀로 양육하며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혼모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감사한 선물인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대한 것 이상으로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윤아 후원자님

해피홀트데이는 후원의 형태와 모습은 다르지만 사랑과 나눔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후원자, 홀트 가족들이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매번 다른 즐겁고 따뜻한 주제로 한 자리에 모여 홀트 가족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2019년에도 후원자분들께서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신다면, 홀트도 그 마음과 손길을 소중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해피홀트데이에도 함께해 주세요.



홀트강동복지관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 행복 서포터즈 홀트강동복지관 · 기획자원개발팀 김선주



홀트강동복지관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입니다. 강동구에만 발달장애인 약 1,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강동복지관은 지난 10월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홀트강동복지관 개관식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 이정훈 강동구청장, 홀트아동복지회 말리홀트 이사장, 김호현 회장 등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공연을 시작으로 최안여 관장의 경과보고, 김호현 회장의 개관인사, 내빈 축사, 다과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은 지하1층부터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실과 '발랄카페(발달장애인이 날마다 성장하는 카페)', '홀트네 행복가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관심으로 큰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공간인 홀트네 행복가게는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을 착한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감각통합실, 언어발달실, 인지발달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층으로, 언제나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3층에는 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넓은 강당과 맛있고 건강한 점심을 제공해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은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우수등급)을 받았고 곧 서울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프로그램, 행복아카데미, 가족나들이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감각통합, 언어재활, 인지재활, 심리운동, 특수체육 등의 치료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각통합, 언어, 인지프로그램들은 발달장애인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유아나 아동의 경우 발달지연 소견서만 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심리운동과 특수체육의 경우 발달장애인 학령기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작업활동과 직업훈련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확보를 위한 권익옹호 교육은 4회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본 건물 3층에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하여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늘봄 아카데미, 계절학교 프로그램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실현하고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위풍당당!
발달장애인의 평생 행복 서포터즈 '홀트강동복지관'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1
- **전화** 02-2251-6100
- **홈페이지** www.holtgangdong.or.kr

1


2


3


1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개관식 축하공연
2 감각통합실 교육장소
3 행복아카데미 교육모습

본부

누베베한의원, 입양대기아동 위해 후원금 전달



11월 21일 누베베한의원의 기부금 전달식이 본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누베베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만원을 입양대기아동들의 양육지원금으로 후원하였습니다. "누베베는 프랑스어로 '작고 예쁜 아기'를 뜻하는 만큼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 사랑받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소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올리브영, '뷰티풀 맘스데이' 후원금 전달



10월 18일 홀트아동복지회 본회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 대표이사 구창근)와 함께하는 미혼한부모 정서지원을 위한 3,800여만원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금은 '뷰티풀 맘스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한부모의 자기만족도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미있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3년째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교육 실시



시설퇴소 아동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멘토교육과 사례관리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12월 7일에는 청소년 아이들의 첫 번째 날갯짓 '자산관리교육과 멘토링'이 실시되었는데요. 앞으로 파랑새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하늘가족교회 창립 61주년 감사예배 초청



마포구에 위치한 하늘가족교회(담임목사 방원철)는 6.25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유가족들을 돌보던 성광모자원에 뿌리를 둔 교회입니다. 지난 9월 창립 61주년을 맞은 감사예배에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초대하여 박요한 홍보대사의 찬양과 간증으로 많은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사무소

경기사무소 '행복한 우리가족 워크샵'



11월 10일 경기사무소는 중앙입양원 후원으로 '행복한 우리가족 워크샵, 알면 더 잘할 수 있는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입양가정 24가정, 자원봉사자 등 총 88명이 행사에 참여하였는데요. 부모님들은 심리검사가 도움이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과 활동을 통해 여러 가족이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대구사무소 대구맘 알뜰장터 · 사생대회



10월 13일 화창한 날씨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터넷 카페 대구맘(김지은 대표) 회원들과 의료문제 아동 치료비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알뜰장터'와 '꼬마화가사생대회 · 주부백일장' 행사가 대구 이월드 정문광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200가족 정도가 알뜰장터 부스에 참여하였고 1,000여명 정도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알뜰장터를 통한 모금된 가슴 따뜻한 기부금은 의료문제로 인하여 입양가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홀트인천후원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9월 13일, 인천후원회는 송현성결교회 비전센터 카페에서 '미혼한부모가정 아동 분유, 기저귀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 사랑나눔 일일찻집'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인천후원회 박상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및 후원회원님들,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사무소, 호남지역 한사랑회 입양가족캠프



10월 26~27일 단풍이 지는 완연한 가을 동신수양관에서 '2018년 호남지역 한사랑회 입양가족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의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끈끈한 사랑을 확인하고 입양가족과의 친밀한 교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청사무소 참 행복한 우리가족 워크샵 실시



10월 19~20일 대전 충남북 입양가족들과 함께 전북 무주 캠핑리조트 빨강치마에서 1박 2일 캠프 '참 행복한 우리가족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전 충남북 130여명의 입양가족들이 열정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아동들이 서로 만나고 가족들이 서로 교류할수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산복지타운

직장인밴드 '로티플밴드' 재능기부 공연

9월 15일 홀트일산복지타운 체육관에서 로티플밴드와 KBS 개그맨 봉사단 '칠칠모임'의 재능기부 공연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로티플밴드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고액후원자 모임인 '탑리더스' 권익도 고문이 나눔을 신철하기 위해 결성하였는데, 2011년부터 시작된 이 공연은 올해로 8회를 맞이하며 참여한 홀트타운 식구들에게 멋진 추억을 다시 한 번 선사했습니다.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소리로 공연



10월 14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홀트장애인합창단〈영혼의 소리로〉의 2018 정기공연이 열렸습니다. '사랑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준비한 이번 공연에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중외학술복지재단, JW그룹, 메리츠화재, 비알코리아, 이데일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능기부로 함께해주신 작곡가 겸 방송인 주영훈님과 베이스바리톤 김동현님, 뮤지컬배우 조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양호수회와 함께한 해외여행



11월 15~17일, 고양호수회와 호남향우회의 후원으로 타운의 아이들 15명이 일본 오사카 일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양호수회는 작년 태국 해외여행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시설에서의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과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해외여행은 쉽지 않기 때문에, 꿈만 같이 두근두근 설레는 2박 3일이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대학 연구보고회



9월 7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6년 동안 진행해온 '고양평생대학' 연구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취업과 창업교육, 자격취득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평생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김장김치 나눔



11월 14일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과 이마트 대구지역 7개 지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달서구청, 달서시장 · 칠성시장 · 경명시장 상인회가 연계하여 '이마트 희망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HOLT NEWS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



이번 행사는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행사 전날 9월 19일 오전부터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행만반사(행복을 만드는 행복한 반송을 만드는 사람들)로 활동하는 주민들과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9월 20일 행사 당일, 다양한 공연과 식사를 통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하하축제' 진행



11월 10일 하남주민들을 위한 복지관 '하하(하남주민 하나로)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감정코칭 부모교육, 장애인식교육 · 체험, 버블풍선 마술공연, 채움놀이터 등 누구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기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웃간의 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과 숲체험



11월 14일, 양평 쉬자파크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 17명이 함께 숲해설 듣기, 나무로 비눗방울불기, 솔방울 던지기, 피리목걸이 만들기, 온열체험 등의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체험 활동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특별한 제주여행



9월 12~14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관협 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주(고받는) 도(란도란 가족이야기) 문화기행은 금산삼계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과 수성구에 위치한 5개 복지관이 연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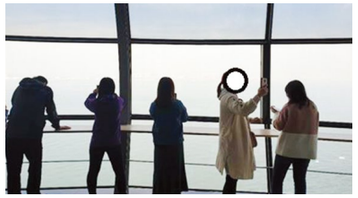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가족나눔합창단'



10월 28일 대연 우암공동체마을에 가족나눔합창단이 떴습니다! 가족나눔합창단은 대표곡 고향의 봄, 홀로 아리랑, 남행열차로 지역주민들과 소리를 나누었고 이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열창함으로써 더 큰 하모니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공연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설렘을 안고, 오늘도 행복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대부도, 소래포구로 떠난 가을여행



10월 25일 고운뜰 입소자 가을여행 프로그램으로 대부도, 소래포구를 다녀왔습니다. 소래포구에서 점심식사로 조개구이, 대하, 게 등의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대부도에선 바다를 바라보며 티타임을 가지며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여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소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대구클로버 가을캠프 '행복한 가족 愛 캠프'



9월 8~9일 대구클로버 입소자들은 부산으로 가을캠프를 떠났습니다. 달구불 후원회와 후원자 한분께서 입소자들 간식으로 후원금을 일부 지원해주셨습니다. 생애 첫 물놀이를 한 입소아동들도 물에 몸을 맡긴 채 즐겼으며, 밤바다를 보며 그동안 육아와 자립준비로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또한 다음날에는 아쿠아리움에 가서 공연도 관람하고 물고기도 보면서 즐거운 1박 2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전클로버 역사를 품은 경주 가족여행

대전클로버 가족들은 한화호텔&리조트의 지원으로 10월 14~15일 경주의 역사속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서로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 의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미혼모자시설 세미나 진행



11월 23~24일 홀트아동복지회 법인 산하 5개 미혼모자시설(아름뜰, 고운뜰, 마포클로버, 대전클로버, 대구클로버)이 함께 '미혼모자시설 생활인의 자립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뜰, 하트너X원더맘 플리마켓



11월 1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KTCS와 함께 두리모 자립지원을 위한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아침뜰 엄마들이 만든 수공예품과 KTCS 임직원의 기부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미혼한부모가정을 돕는데 사용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포 패밀리 웰컴데이' 개최



11월 17일 마포구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당에서 다문화 · 비다문화가족 통합 프로그램으로 '마포 패밀리 웰컴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가족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버블쇼와 행운권 추첨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체육대회



춘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0월 26일 다문화가족이 참여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 많은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화목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주영아원

보건복지부장관 전주영아원 현장 방문

9월 19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실무담당자들이 전주영아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보고 및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수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하고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아현건강정보관 체험



마포어린이집은 10월 24일에 아현정보관체험으로 건강체험을 다녀왔습니다. '1830' 손 씻기 법칙, 식품 구성탑, 흡연, 비만 예방교육,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동어린이집 부모참여 수업 진행



11월 10일 만 3,4,5세 부모들이 중동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체육, 영어, 음률 특별활동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부모들은 평소 궁금했던 수업 모습과 어린이집 생활모습을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려드려요.

1.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이용하기

– 온라인 회원가입자가 아닐 경우 나눔지원팀(T.02–331–7073~6)으로 연락주세요.

01	▶	02	▶	03	▶	04
홀트아동복지회 로그인 (www.holt.or.kr)		마이페이지		나의 후원정보		기부금 영수증 출력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2019년 1월 중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 홀트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주셔야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01	▶	02	▶	03	▶	04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조회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에 확인해주세요.

– 지로납부의 경우 12월 2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해주셔야 2018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로 우편발송은 종료 되었으나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연락주세요.

– 후원자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다른 경우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라며, 정보확인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눔지원팀(T.02–331–7073~6) 으로 연락주세요.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후원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패밀리#이란?

뜻있는 중소상공인 분들이 매월 매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 병원, 카페 등 규모와 종류는 달라도,
따뜻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신은 나눔 가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02)331-7146

보타닉힐 보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기업입니다.

boH
BOTANIC HEAL



안티에이징,

프로바이오틱스*로
탄력받다

보타닉힐 보 프로바이오덤



*락토바실러스발효물